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운영방식(II)

브랜드화된 농촌관광 공급자 네트워크

○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농촌지트협회’ (Fédération des Gîtes ruraux de France)와 농업회의소의 ‘농업과 관광’ (Agriculture et Tourisme : Bienvenue à la ferme)조직, 소농중심의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인 ‘농민적 접대’ (Accueil Paysan)등 3대 조직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이 네트워크화 되어있다.

이들 조직에 가입한 농촌관광 사업체들은 하나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공동마케팅,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토콜(Charge de qualité)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관광 분야는 물론 그린투어리즘분야 내에서도 상호 경쟁이 치열하다.

- Bienvenue à la ferme(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



▲ 가족형 영농법인(GAEC)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Bienvenue à la ferme의 '농가음식체험' 농가

니다)와 Accueil Paysan(농민적 접대)은 농가에 기반을 둔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인 반면, Gîtes ruraux de France는 비농가로서 농촌지역에서 민박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 <참고표 1>은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농촌관광 3대 조직별로 조직과 현황, 품질관리가 적용되는 농촌관광상품들을 나타낸 것이다.

농촌관광상품의 품질관리 : 품질헌장(Charter de qualité)

○ 프랑스의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시설들은 농촌관광상품의 품질을 유지, 감독하기 위해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업관광 네트워크인 'Bienvenue à la ferme(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경우 <참고표 2>와 같이 'Bienvenue à la ferme-숙박', 'Bienvenue à la ferme-직판장' 등 9개의 브랜드가 프로토콜을 통해 지정돼 있으며, 프로토콜에는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㉞

(편집자주 : EU의 농촌개발정책과 농촌관광, 지역아카데미의 세미나 자료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